

## 총장-뉴스레터 – 88 (2024-8-30)

### 여리고 정복과 파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 뿐이었다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15-16)

유월절이 지나자 칼을 빼어 든 천사가 전쟁을 시작한다. 천사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말하지 않지만, 가나안 땅을 둘러싼 전투는 사람 힘으로 결판 낼 수 없다는 사실이 6장에서 계속되는 내용에서 분명해진다. 여호수아는 불타는 나무떨기를 본 모세의 경우와 비슷하게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힘을 얻어 눈 앞에 닥친 임무를 다 하기 위해 준비한다.

#### 여리고 정복과 파괴 (6:1-21)

요새지 여리고는 가나안 땅 입구에 가로질러 놓은 문빚장과 같다. 여기서 벌어지는 결전은 가나안 정복의 본보기가 된다. 한 쪽에는 튼튼한 성벽과 ‘굳게’ 닫힌 성문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 사람의 힘이나 피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표인 언약궤를 자기들 한가운데에 모시고 여리고 성을 돌며 행진한다. 양각나팔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소리를 낸다.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돈 것은 세부적으로는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서로 다른 두 전통이 한데 얽혀 표현되어 있다고 보면 문제는 해결된다. 한 전통에 따르면 군사들은 하루에 한 번씩 6일동안 침묵 가운데 성 주위를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번째로 돌 때 함성을 지르고(3,10,16), 또 다른 전통에 따르면 처음부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분다. 제사장들의 행렬은 예배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침묵과 함성은 둘 다 겁을 주는 것이지만 서로 대립되는 것인데, 이 두 요소를 지닌 전쟁 이야기는 여리고 성의 정복을 심리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두 전통 모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여기고 있다.

#### 라합의 가족을 살리다 (6:23-25)

라합과 그의 가족은 정탐꾼들이 약속한대로 화를 면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주권을 획득한다. 마1:5절에 따르면 이들은 이스라엘 진 밖에 머물게 용인된 이방인들 이상의 존재였다. ‘그가 ...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라는 표현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마 이들은 진 밖에 거하면서 정결 의식을 행하였고, 이 같은 의식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간주되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이방인일 뿐 아니라 한때 성적으로 문란한 과거를 가졌던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부정을 씻을 때에는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더 불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알게 한다. 한편 기생 라합은 후에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의 4대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를 낳는 영광을 누렸다

라합과 그 일가가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인간적으로 깊은 신세를 진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들이 라합 일가의 구원요청을 들어줄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만일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본문에서 라합과 그 일가가 여리고 성으로부터 밖으로 이끌어 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나타내고 동시에 이는 구원할 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 주는 말씀인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던 두 정탐꾼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현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 **생각하기**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읍에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자 스스로를 구별하여 따로 남아 있는 무리들을 구원한 것이다. 전쟁의 와중에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잊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즉 앞서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는 그들이 라합에게서 입었던 은혜와 그들이 그녀에게 했던 약속 내용을 유념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매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녀야 할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교훈해 준다.